

보도자료

2011년 8월 29일(월) 16시 30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진흥기획관 디지털방송정책과 유대선 과장(☎750-2330)
디지털방송정책과 광동엽 사무관(☎750-2333) kdy@kcc.go.kr

최시중 위원장, 취약계층지원용 DTV 생산현장 방문 - 일반계층의 DTV구입 부담 경감 필요성 강조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월 29일(월)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LG전자 3공장을 방문하여 취약계층지원용 DTV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구미공장 생산현장에서 수도권지역에 배송·설치될 예정인 취약계층지원용 DTV를 배송트럭에 직접 싣는 행사도 가졌다.

최 위원장은 배송행사에 앞서 “경제적인 이유로 DTV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저렴하게 디지털TV를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DTV 배송행사 전, 김영기 LG전자 부사장과 의 간담회를 통해 “일반국민들도 DTV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최근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를 통해 촉발된 IT산업의 급변에 LG전자가 잘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